

# 농약사용으로 인한

##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자세

지난 9월 30日 東亞日報 1面 머릿기사는 국립환경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농민들 중금속오염 심각”이라는 제목하에 농촌지역에서 농작물의 병충해방제를 위해 과다하게 뿌리는 농약으로 지역주민의 중금속오염(수은, 납, 카드뮴, 아연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또 농촌지역은 도시나 공장지대등 공해지역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해요인이 없는 비오염지역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농약사용량의 증가로 농약속에 포함돼있는 중금속에 의해 농작물이 오염되고 이 농작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경로를 거쳐 인체의 중금속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기사를 [접하고 농약을 범인시하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자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뿐 아니라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90%가 안전한 보통독성 농약

우선 우리나라에 고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농약은 총 262개품목으로 이중 90%에 달하는 237개품목이 보통독성을 지닌 안전한 농약이고 나머지 23개품목은 고독성농약, 2개 품목은 맹독성농약으로 되어있다.

더우기 독성이 높다고 하는 25개 품목은 공급대상·수송·보관·판매

사용등 그 취급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벼농사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유해중금속 함유 농약 없어

특히 국립환경 연구소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소위 유해중금속원소라 할수있는 수은·납·카드뮴을 함유하고 있는 농약은 <표 1>에서 보는바와같이 이미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더우기 카드뮴을 함유한 농약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것을 밝혀준다.

# 농민 중금속 오염 우려 없다

—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표 1> 중금속 함유농약 사용상황

중금속	현 유통 농약				과거 사용 농약			
	농약명	적용작물 및 병해충명	연 사용량	간 등록년도	농약명	적용작물 및 병해충명	연 사용량	사 사용금지년도
수 은			kg		세제산석회	수도도열병	41,546	'69
					PTA-B	"	9,136	'72
					메르크롱	종자소독제	615	'78
					계		51,297	—
납 카드뮴					비산연	과수풍매이	115,606	'80
구 리	포리동	사과결무늬낙엽병	1,400	'80				
	옥시동	"	57	'81				
	쿠퍼	토마토결 등근무늬병	10,420	'80				
	계		11,877					
	아연	만코지네브	사과탄저병	132,260	'63			
	지네브	"	9,338	'69				
	계		141,598					

○현재 유통농약중 함유된 중금속은 동과 아연뿐임.

<자료: 농약연구소>

## 아연·구리, 작물재배에 필수

한편 농약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있는 농약중 중금속원소가 함유되고있는 농약은 원예작물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고있는 3종의

유기동제와 2종의 아연함유 디치오카바메이트계 농약이 있지만 이들 농약들이 함유한 구리 및 아연은 동식물체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미량원소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원소중 아연(亞鉛)은

간척지 및 석회암(石灰岩)지대에는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며 구리는 개간지토양에는 반드시 시용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이들 원소는 인체내에서도 필수적인것으로 소위 영양제에는 이들 원소를 항상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것은

이와같은 중요한 필수원소도 과량일 경우에는 동식물에 해를 끼칠수가 있지만 현재 농약으로 투여되는 양은 <표 2>에서 보는바와같이 구리가 0.11ppm, 아연이 0.28ppm으로 극미량이므로 오히려 작물생육에 미량원소의 공급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이다.

<표 2> 농약으로 인한 토양중 중금속 투여량

중금속	연간투여량	
	총량(%)	10a당투여량(g)
동	11.9	11.88(0.11ppm)
아연	141.6	31.89(0.28ppm)

○동, 아연을 함유한 농약은 원예병해방제용농약으로 그 투하량은 토양중 각각 0.11ppm, 0.28ppm에 해당하는 극미량임. <자료: 농약연구소>

<표 3> 동, 아연 필수미량원소

중금속	토양부존량	식물체중 역할	결핍증	과잉증
동	10~200ppm	○산화환원효소구성 성분 ○호흡대사에 관여	신엽선단황백화	근신장억제
아연	10~300	○단백질전분합성촉진 ○산화환원효소활성화	엽맥간황변및엽쇄소화	엽면에 반점

○동, 아연은 식물생육에 필수적인 미량원소이며 특히 간척지 및 석회암토양에는 아연을 시용하여야 정상적인 작물재배가 가능하다. <자료: 농약연구소>

**잘못된 보도 불신만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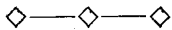
위와같은 점을 감안해볼때 농민의 중금속오염이 농약에 기인한것처럼 오도된것은 농약을 전연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저 농업자재로 농약

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럴수도 있다는 추측에서 기인(基因)한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매스컴」과 학자들이 농약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마치 수은이

함유된것처럼 착각하거나 같은것으로 여겨 농약에 대한 불신과 인식을 흐리게하는 처사는 근대농약이 지닌 안정성측면을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만 한다.

특히 일부학자들의 무책임한 농약 잔류관계자료의 제공이나 이를 인용하여 잘못 보도함으로써 농약을 범인시하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자세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공포의 4천만을 돌파했고 우리에게 부과된 식량 증산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정도로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식량문제는 가공의 숙제거리로 다시한번 부각되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무서운 질병의 치료가 인류복지에 큰 공헌을 하듯이 농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병해충의 치료와 예방이 없이는 지속적인 식량증산은 이룰수 없다는 점을 감안, 사실과 다른 연구자료를 제공한다면지 또 이 자료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빚어지는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도 우리 모두 신중하게 반성해볼 문제이며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근대농약의 새로운 인식제고를 바란다.

## ◎ 11월은 농약빈병수집중점의 달 입니다. ◎

내가 쓰고 함부로 버린 농약빈병 하나가 적게는 나의 발을 다치게하고 영농작업에 큰 지장을 주는가 하면 크게는 농촌환경을 더럽히는 공해요소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빈병수집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한 농촌환경보전에 솔선해야겠습니다.

### ◇ 빈병회수절차

- 부락별로 수집된 빈병은 새마을 영농회장 책임아래 단위조합에 집결
- 단위조합에 집결된 빈병은 군지부장 책임하에 군단위에 집합
- 제조회사는 책임지역별로 빈병전량을 회수